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협상대상자로

평가위 심의 결과 전략산업 육성·친환경 개발 호평

아파트 17%·전략사업 15%·주상 8%·상업시설 3% 순

총 사업비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평동준공업지역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8개 업체가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확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주), ㈜호반건설, 중흥토건(주), 제일건설(주), 우미건설(주), ㈜스카이일레브, 케이비증권(주), 현대차증권(주) 등이다.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광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개 업체만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공모 지침에는 단 1개의 사업계획만 응모하더라도 평가위 심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열린 평가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원 조달계획, 지역전략산업 시설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공동주택 건립 위주 개발이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과 친환경 개발이라는 점이 광주시가 제시한 공모지침을 만족시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라는 목표 아래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제작·채널·공유하는 복합플랫폼 도시 조성이라는 개발 컨셉과 함께 ▲새로운 한류 문화 콘텐츠 거점 조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도시라는 세부 테마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했다.

특히 1만5000여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과 영화·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한 한류콘텐츠 활용 스튜디오, 최첨단 미래 자율주행 차량과 스마트 테크놀로지 연구·전시가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 및 인공지능(AI) R&D센터, 방송콘텐츠 기획·제작 교육 및 청년창업 지원하는 아카데미 등 21만㎡ 부지에 지역 전략산업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각각 5000세대와 3000세대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 대구, 울산 등 다른 지역 유사개발사업의 아파트 건립비율보다 최대 50% 가량 적은 비율이다.

조성 비율만 놓고 보면 아파트 17.2%, 전략산업 15.2%, 주상복합 8.1%, 상업 3.1% 순이 되며, "협상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유동적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1조8098억 원으로, 부지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이다. 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모두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다. /김도주 기자

광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국민기초수급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23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현재 기준 광주시에서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인 자녀로, 교복착용과 관계없이 지원해 교복 대신 일반복을 구입해야 하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올해는 교복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가구 사전 파악을 통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해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 일괄지급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동주 기자

기초생활수급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광주시, 2390여명에 5억5천만원...1인당 23만원

교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에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는 사업으로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며, 지난해에는 신입생 2262명에게 1인당 21만5000원, 총 5억원의 교복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자치구별 수요 파악을 통해 총 2390여 명을 지원 대상으로 추계했으며, 지원 단위 현실화를 위해 교육청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을 참고해 지난해보다 증액된 1인당 23만원, 총 5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항 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 교복비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주 기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기공사 발주

광주시는 3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본선 전기공사 총 12건(총 사업비 904억원)을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고, 4월 중에 업체 선정 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유덕동 차량기지-시청-백운광장-광주역에 이르는 1단계 본선 17km 구간 정거장 20곳 및 환기구 20곳이다.

이 가운데 유덕동 차량기지는 지난해 11월에 송·변전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업비 100억원의 계약이 체결돼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2호선 1단계 본선 전기공사에 지역 전기공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송·변전, 일반전기, 전차선 등 3개 분야를 12개 구로 분리해 발주했다.

송·변전과 일반전기는 시공 실적이 없어도 단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차선은 시공 실적 1km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지만 시공 실적이 없으면 지역 업체 49% 의무공용도급으로 참여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공사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주 기자

남임부부에 한약·뜸 한방진료 지원

전남도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남성도 대상

전남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남임부부 지원을 위해 한방 난임치료 대상자를 오늘 8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초혼 연령 상승과 환경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남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가정(2인 기준 월소득 61.7만6000원) 중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남임부부다. 올해부터 남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4개월분 맞춤형 약, 뜸 등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바라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남성은 정액검사 결과지 포함)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수남 기자

전남 취약계층 지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전남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포함토록 해 3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15억원을 들여 2970가구에 소규모 주택수리 재료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0억원으로 늘려 39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 안전 등 전문 서비스 제공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실질적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기관별 기동대도 운영한다.

광주 근평순위 공개·실국 균형인사...인사혁신안 발표

실무수습제·사내대학 운영 등 조직역량·신규세대 소통 강화

광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공개하고 실국 균형인사도 시행한다.

광주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실국 근무성적평정 순위 공개'와 직무·역량평가, 청렴성 등을 기반으로 한 간부공무원 승진인사를 강화한다.

또 업무전문성과 연속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개인희망·경력맞춤형·성비 등을 고려한 '실국 균형인사'를 시행한다.

지난 2018년 '시·자치구 간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광주시가 직접 임용한 20~30대 직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신규 세대간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 혁신교육', '사내 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전임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으로 조직·업무 적응을 강화한다.

또 인사·조직부서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인 총원정책'으로 올해는 795명(광주시 383명·자치구 412명)의 신규 공채자를 충원하는 등 장기

적인 결원해소 대책으로 인력구조를 개선한다.

이와함께 신규 임용후보자의 조직 적응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민선7기 후반기 인사혁신방안'은 지난해 하반기 이용섭이 시장이 민선7기 2년 동안의 인사운영을 진단해 조직의 활력과 성과증진의 시정운영이 될 수 있는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전 직급·직렬별 대표, 간부공무원, 노조 등과 간담회를 거쳐 인사혁신 10대 의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인사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한동주 기자

코로나19 슬기롭게 이겨내기!

비대면 독서 문화시설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위치

- 신창동 신창동 1171-3(행정복지센터 앞)
- 송정1동 송정동 713(지하철 송정공원역사 내)
- 첨단2동 월계동 889-3(LC타워 앞)
- 수완동 수완동 935(행정복지센터 앞)
- 송정2동 송정동 833-8(광산구보건소 앞)
- 평동 월전동 51-23(지하철 평동역사 내)
- 월곡1동 월곡동 687-1(월곡1동행정복지센터 앞)
- 하남동 장덕동 992-10(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스마트도서관 위치

스마트도서관 이용방법

- 대출권수 1인 3권 이내
- 대출기간 대출일 포함 15일
- 대출방법 광산구립도서관회원증
- 반납방법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 반납
- 운영시간 연중무휴 오전5시 ~ 24시